1950~1960년대 대학교 교지 소재 번역시 연구*

정경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Kyeongeun Chung. (2020). A study of translated poetry by students published in university journals in the 1950s and 1960s.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type of poems Korean college students translated in the 1950s and 60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university journals show the variations of keywords from time to time. The main keywords in the university journals published in the 1950s were 'Reconstruction', 'Existentialism', and 'Romanticism.' Meanwhile, there were active discussions on 'humanism', 'symbolism', and 'realism' in the 1960s. The translations of foreign poems that were published in university journals in those tim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se keywords. For instance, students in the 1950s translated foreign poems that spoke of death, absurdity, and voidness into Korean, in the reflection of the tragic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During that time, college students were interested i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However, the students in the 1960s were more passionate about French and German poets. Therefore, many French and German poems that had symbolism, realism, and parnassianism were translated into Korean. This reflects the agony of Korean society under military dictatorship and students' resistance against i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Korea)

Keywords: university journals, translation, 1950~1960's, symbolism, romanticism, existentialism, humanism, parnassian.

주제어: 대학교 교지, 번역, 1950~1960년대, 상징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 고답파

*본 연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들어가며

한국에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이후 거의 모든 학교는 해마다 교지를 발간했는데, 학생들이 편집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고민, 관심, 문화 등이 압축되어 있다. 매해 발간되는 특성상 당대적이기 때문에 당대의 사조와 문화가 학생들에게 수용되는 양상을 교지에 실린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지에 실린 글 가운데 본고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 문학에 관련된 글, 즉 학생들이 번역한 글, 외국문학에 대한 서평, 독후감, 논문이다. 이러한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학을 선택해서 읽고 번역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당시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던 학문 분야 및 사상적 동향과 문화적 인식을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지에 실린 학생들의 번역문학 연구는 미미한 편이며, 해방 전과 1950년 이전까지 해방공간의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영향 관계는 상당 부분 연구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의 교지에 게재된 번역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번역문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봉범(2012)은 1950년대 국가 주도의 번역이 이루어져 기형적인 번역이 되었으며, 출판자본은 세계문학 전집과 문고본의 완역으로 지식의 대중화와 번역의 저변 확대에 통로 구실을 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1950년대 학생 번역시 연구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했다. 김병철(1998)의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상)는 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1950~1960년대 학생 번역시 연구에서 당시의 번역된 문학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당시 중고등학교에서 발간한 교지도 있지만 이의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대학생들이 발간한 교지에 한정하여 1950년대 전쟁과 전후의 복구, 1960년대 재건에 대한 부담감, 사회와 정치의 부패에 대한 투쟁, 4.19와 5.16 등 정치의 격변이라는 변화가 학생들의 번역문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2. 1950~1960년대 교지 소재 번역시의 기본 사항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교지에 실린 번역시

의 목록은 다음 <표1>과 같다. 총 107권의 교지[1]를 분석한 결과 번역시가 실린 교지는 15권, 번역시는 29편이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1950년대 연구대상 교지 27권[2] 가운데 2권의 교지에서 번역시 4편, 1960년대 연구대상 교지 80권[3] 가운데 13권의 교지에서 25편의 번역시를 찾았다. 1950년대 교지 소재

1) 참고문헌의 기초자료는 검토한 전체교지 107권 중, 번역시가 실린 교지와 본 연구에서 참고한 논문이 실린 교지의 목록이다.

2) 『학보』1(국민대학교, 1953), 『고대문화』1(고대문학회, 1955), 『의대』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도호국단, 1955), 『이화』10(이화여자대학교, 1955), 『중앙문화』2(중앙대학교 이리분교, 1955), 『교육』4(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56), 『문리대학보』1(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1956), 『문학』1(서울대학교 문리대학회, 1956), 『이화』11(이화여자대학교, 1956), 『문경』4(중앙대학교 문리과 대학, 1956), 『효원』1(부산대학교, 1957), 『국어국문학 연구』2(이화여자대학교, 1957), 『녹원』3(이대 문리대, 1958), 『동국시집』7(동국대학교, 1958), 『이화』13(이화여자대학교, 1958), 『청구문학』1(청구대학교, 1958), 『청파문학』1(숙대 청파문학회, 1958), 『학보』1-1(부산대학교, 1958), 『개척자』7(진주농과대학, 1959), 『고운』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959), 『단원』2(단국대학교, 1959), 『동국시집』8(동국대학교, 1959), 『문경』7(중앙대학교 문리과 대학, 1959), 『사총』4(고려대학교 사학회, 1959), 『청구문학』2(청구대학, 1959), 『행운』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959), 『효원』3(부산대학교, 1959).

3) 1960년 발간 교지는 『국어국문학연구』2(이화여자대학), 『국제대학 논지』1(국제대학), 『보우』1(재경보성학우회), 『성균』12(성균관대학)이다. 1961년 발간교지는 『녹문』1(이화여자대학), 『단원』3(단국대학), 『동국시집』10(동국대학), 『문경』12(중앙대학), 『사총』6(고려대학), 『성대문학』7(성균관대학), 『성대문학』8(성균관대학), 『정경학보』1(한양대학)이다. 1962년 발간교지는 『고황』10(경희대학), 『문리대학보』10-1(서울대학), 『문리대학보』9-1(서울대학), 『사총』7(고려대학), 『이화』17(이화여자대학)이다. 1963년 발간교지는 『고황』11(경희대학), 『녹원』8(이화여자대학), 『가정』1(동아대학), 『국문학』7(고려대학), 『국민대학보』15(국민대학), 『사총』8(고려대학), 『성균』17(성균관대학), 『외대학보』4(한국외국어대학), 『이공대학보』1(고려대학), 『이화』18(이화여자대학), 『청파문학』3(숙명여자대학), 『코이노니아』12(한국신학대학)이다. 1964년 발간교지는 『녹원』9(이화여자대학), 『성대문화』10(성대국문학회), 『이화』19(이화여자대학), 『청파문학』4(숙명여자대학), 『홍익』2(홍익대학), 『홍익』3(홍익대학), 『효원』6(부산대학)이다. 1965년 발간교지는 『경상휘집』1(건국대학), 『녹원』10(이화여자대학), 『동아』5(동아대학), 『문리대학보』19(중앙대학), 『문리대학보』19(중앙대학), 『상경휘집』1(국민대학), 『이화』20(이화여자대학), 『청파문학』5(숙명여자대학)이다. 1966년 발간교지는 『건대학보』20(건국대학), 『사대학보』2(중앙대학), 『우석』4(수도의과대학), 『원광문화』5(원광대학), 『이화』21(이화여자대학), 『자굴산』10(재경의령학우회)이다. 1967년 발간교지는 『경기』2(경기대학), 『계명』1(계명대학), 『동아』7(동아대학), 『사대학보』3(중앙대학), 『상대평론』24(서울대학), 『숙대학보』7(숙명여자대학), 『의창』1(부산대학), 『이화』22(이화여자대학), 『코이노니아』13(한국신학대학), 『피데스 Fides』13(서울대학), 『피데스 Fides』14(서울대학)이다. 1968년 발간교지는 『개척』4(농과대학중앙농민학교), 『고대문화』8(고려대학), 『동국사상』4(동국대학), 『동국』5(동국대학), 『동아』8(동아대학), 『문경』25(중앙대학), 『문리대학보』11(부산대학), 『문리대학예』6(부산대학), 『숙대학보』8(숙명여자대학), 『숙대학보』창립30주년기념증간호(숙명여자대학), 『이공학보』4(중앙대학), 『이화』23(이화여자대학), 『중앙문화』3(중앙대학), 『피데스 Fides』15(서울대학), 『피데스 Fides』16(서울대학)이다. 1969년 발간교지는 『냉천』1(감리교신학대학), 『목멱』2(숭의보육전문대학), 『부학』2(연세대학), 『사대학보』5(중앙대학), 『영대문화』2(영남대학), 『예술서라벌』4(서라벌예술대학), 『우석』1(우석대학), 『이화』24(이화여자대학), 『전망』5(대전신학대학), 『청량원』23-1(서울대학), 『청량원』23-2(서울대학), 『코이노니아』15(한국신학대학), 『토마』1(서강대학), 『피데스 Fides』17(서울대학), 『형성』3-1(서울대학), 『형성』3-2(서울대학)이다. 지면의 한계상 발간주체에서 각 단과대 명칭은 생략하였다.

번역시는 전체 27권 교지의 14.8%, 1960년대 교지 소재 번역시는 전체 80권 교지의 28.7%를 차지한다. 다른 문학에 비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부터 1959년까지 9년 사이에 3년의 전쟁기간과 복구시기 2년을 제외해도 4년 동안 번역된 시가 3편뿐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를 연구대상 시기에 올린 이유는 1950~60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은 번역을 빼놓고 설명(윤미선 2019: 69~70)할 수 없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목적이 해방 전과 해방공간의 학생번역시 연구를 이어서 고찰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문화의 헤게모니가 일본 중심에서 서구 중심으로 바뀌면서 번역은 해외 문물 유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 1970~1980년의 교지 소재 번역시의 경향을 확인할 것이다. <표1>의 순서는 교지가 발간된 연도순이며 표기 방식은 교지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현대의 표기법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제목 앞의 번호는 <표2>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표 1. 연구대상 1950~1960년대 교지 소재 번역시

게재교지 발간주체	번호	원제목	원저자	번역 제목	번역자 (학과. 학년)
『중앙문화』2, 중앙대학교 이리분교 학도호국단, 1955.	①	Annabel Lee	에드가 알란 포우 (Edgar Allan, Poe)	안나벨 리이	육원감(약학)
	②	歸去來辭	도연명(晋 陶淵明)	귀거래사	허봉
『고대문화』1, 고대문화간행위원회, 1955.	③	I think Continually of those Who Were Truly Great	스테픈 스펜더 (Stephen Spender)	나는 끊임없이 생각한다	향민(대학원)
	④	Nothing Gold Can Stay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Frost)	황금빛으로 머믈 수는 없어라	향민(대학원)
『성대문학』7, 성대문학회, 1961.	⑤	원제 밝히지 않음	폴 발레리(Paul Valéry)	씨사	김성배(불문)
	⑥	원제 밝히지 않음	요세프 폰 아이헨도르프 (Jeseph von Eichendorfe)	동경	심윤종(독문)
	⑦	원제 밝히지 않음	헤르만 헷세 Hermann Hesse	밤마다	원귀희(독문)
『이화』17, 이화여자대학교중앙재건학생	⑧	Quand vient le soir	찰스 반 레르 베르게 (Charles Van Lerberghe)	밤이 올 땐	조명희(불문4)

게재교지 발간주체	번호	원제목	원저자	번역 제목	번역자 (학과. 학년)
회, 1962.	⑨	Il pleut	프란시스 카르코 (Francis Carco)	비가 내립니다	신계숙(불문4)
『녹원』9,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1963.	⑩	La Mort du Loup	알프레드 드 비니 (Alfred de Vigny)	이리의 죽음	정강자(영문3)
	⑪	Lied der Abelone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아베로오네의 노래	장희규 (도서관4)
『이화』18, 이화여자대학교 중앙학생회, 1963.	⑫	Accalmine	장 모레아스 (Jean Moreas)	정(靜)	권남규(불문4)
	⑬	Spring Night	사라 티즈데일 (Sara Teasdale)	봄밤	서영숙(영문4)
『이화』19, 이화여자대학교 중앙학생회, 1964.	⑭	Les Elephants	르콩트 드 릴르 (Par Leconte de Lisle)	군상	이계은(불문4)
『홍익』3 홍익대학 학생회, 1964.	⑮	상강(霜降)	구상	Frostfall	J.F.4 Kyoseung Kim
	⑯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I'd never known it before	L.C. 4 Bunja Lee
『녹원』10,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1965.	⑰	The Listeners	월터 드 라 메어 (Walter De La Mare)	듣는 이들	안순희
	⑱	Le Cygne	셜리 프리돔 (Sully prudhomme)	백조	성명숙(불문3)
	⑲	Klage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탄식	양덕자(독문1)
	⑳	難得	쉬지모(徐志摩)	難得	오송자 (한국어문학3)
『우석』4 수도의과대학, 1966.	㉑	Today	토마스 칼라일 (Thomas Carlyle)	오늘	이옥희(간2)
『숙대학보』7,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1967.	㉒	Ecoutez La Chanson Bien Douce	폴 베를렌 (Paul Verlaine)	신의 노래	이남숙(불문4)
『숙대학보』8,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1968.	㉓	The Reaper	윌리엄 워즈워드 (Willam Wordsworth)	수확자(收穫者)	송재영(동문)
『이화』23, 이화여자	㉔	Adieu	알프레드 드 뮈세	아듀	장경희(불문3)

게재교지 발간주체	번호	원제목	원저자	번역 제목	번역자 (학과. 학년)
대학교 총학생회, 1968.			(Alfred de Musset)		
『코이노니아』15, 한국신학대학 학생회, 1969.	㉕	Herbst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가을	편집실
『중앙문화』3,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1968.	㉖	The Good Morrow	존 던 (John Donne)	좋은 아침	김은자(영문4)
『이화』24,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1969.	㉗	La cloche fêèe	찰스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	깨진 종	박흠련
	㉘	The Experess	스테픈 스펜더 (Stephen Spender)	급행열차	박미봉
	㉙	Das Spiegelbild	드로스테-휠스호프 (Annette von Droste - Hülshoff)	거울 속의 상(像)	최민숙

<표1>을 보면 겹쳐지는 번역시가 하나도 없으며, 1960년대 학생들이 번역한 시들 가운데 현대에도 번역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번역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연구를 위해 사전 조사한 결과 1980년대 교지에는 번역시가 거의 없었다. 전문 번역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50~1960년대 번역시집이 많지 않았을 때 학업 중인 학생들이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번역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표1>을 보면 1950~1960년대 연구대상 107권의 교지 가운데 번역시가 실린 교지는 15권인데, 여자대학교에서 발간한 교지는 총 8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50년대 여학교에서 발간한 교지[4]에 번역시는 없었고 1960년대 교지에 주로 소재한다. 여학교와 번역과의 연관을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 교지 80권에 실린 외국 문학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총 24편[5]이었다. 이 가운데 여자대학

4) 『국어국문학 연구』2, 『녹원』3, 『이화』10, 『이화』11, 『이화』13, 『청파문학』1

5) 「랭보오 산고」(『성대문학』7), 「콘라드의 Prose Style」, 「카프카와 릴케에 나타난 현대의식」, 「현대 독일서정시의 문제점」, 「독문학연구의 작금」(『문리대학보』9-1), 「나다니엘 호오손의 기교」, 「존 스타인백의 생애와 작품」(『고황』10), 「불란서 휴우머니즘 참견」(『이화』18), 「쏘련청소년과 문학」, 「서반아 국민문학에 나타난 Porez Galdos의 사상적 동향」(『외대학보』4), 「상트뵈에브의 비판의식에 대하여」, 「말로의 연구」(『청파문학』4), 「노발리스의 연인들」(『효원』6), 「호우머와 단테」(『문리

교의 논문은 6편으로 25% 정도이다. 번역시는 많았지만 논문은 그의 절반임을 알 수 있다. 위 <표1>의 ⑩번 시인 Alfred de Vigny는 1966년 발간된『이화』21의 논문「운명시집에 나타난 Alfred de vigny의 사상」에서도 논의되었으며, 1967년 발간된『이화』22의 논문「잉게보르그 밧하만 소고」에서 언급한 잉게보르그 밧하만의 시는 1973년『이화』28권에「Lied von einer Insel, von Ingeborg Bachmann, 섬의 노래」(최은실)로 번역된다. 번역과 여학교와의 관계는 1960년대와의 연관성, 여학교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논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리고 위 <표1>에서 한국 시인들의 시를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한『홍익』3권의 경우는 표본이 작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다음 연구자에게 미루기로 한다.

2.1. 국가별 분석

학생들의 번역문학에서 번역된 시인의 대상국가는 당대 학생들이 타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당대 교수들이 어느 국가의 언어를 전공으로 했는가와 연관된다. 위의 <표1>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별로 다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국가별 분석

국가권역	국가	<표1>의 일련번호	
영미권	영국	③, ㉘	Stephen Spender
		⑰	Walter De La Mare
		㉑	Thomas Carlyle
		㉓	Willam Wordsworth
		㉖	John Donne
	미국	①	Edgar Allan Poe

대학보』19),「토마스만 소고」(『이화』20),「운명시집에 나타난 Alfred de vigny의 사상」(『이화』21),「잉게보르그 밧하만 소고」(『이화』22),「E.A.Poe의 소고」,「전쟁과 존 스타인 벡」(『계명』1),「T.S엘리옷의 신비평의 영향」,「제인 오스틴의 Domenestic Stire」,「헤밍웨이 문학상에 나타난 심볼리즘」,「카프카의 '성'과 '소송'의 연구」(『문리대학보』11),「입센과 유령」(『동국』5),「나다니엘 호오돈 연구서설」(『사대학보』5) 발간주체와 발행연도는 앞의 각주 3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국가권역	국가	<표1>의 일련번호	
		④	Robert Frost
		⑬	Sara Teasdale
프랑스권	프랑스	⑤	Paul Valary
		⑨	Francis Carco
		⑩	Alfred de Vigny
		⑭	Par Leconte de Lisle
		㉔	Alfred de Musset
		⑱	Sully prudhomme
		㉗	Charles Baudelaire
		㉒	P. Verlaine
	벨기에	⑧	Charles Van Lerberghe
	그리스	⑫	Jean Moreas
독일		⑥	Jeseph von Eichendorfe
		⑦	Hermann Hesse
		⑪, ⑲, ㉕	Rainer Maria Rilke
		㉙	Annette von Droste-Hulshoff
중국		②	도연명 (陶淵明)
		⑳	쉬지모 (徐志摩)

위의 <표2>를 보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대학교 교지에 번역된 시인의 대상 국가는 7개국이다. 영국 시인 5명, 미국 시인 3명으로 영미권이 8명(9편)이다. 프랑스 시인은 8명이지만, 그리스 시인 얀 모레아스와 벨기에 시인 찰스 반 레르 베르게가 프랑스어로 시를 썼으며 번역자들도 불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프랑스 권역에 포함하면 프랑스시가 10편이다. 그리고 독일시인이 4명(6편), 중국시인이 2명(2편)이다.

이를 해방 전과 비교(정경은 2011)해보면 해방 전 교지에 번역된 시인들의 대상 국가는 8개국이었다. 영미권의 시인이 14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교지인『이화』,『연희』그리고 윌리엄 블레이크를 전공한 정지용이 교사로 있었던 휘문고등보통학교의『휘문』에 집중되어 있다. 영미권의 작가들에 대한 치중은 영미권 선교사들 혹은 영미권 유학생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해방 전에는 프랑스 시인 3명, 독일 시인 3명이었으므로, 1950년대 이후 프랑스 시의 번역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시는 해방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시인의 시가 번역되지 않았다. 1960년대 교지에 실린 아시아

문학 관련 논문을 보면 중국 관련 논문이 두 편[6]이었으며 일본 문학에 관련된 논문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방 전이나 이후나 중국 외에는 아시아 지성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2. 시인별 분석

위 <표1>을 보면 해방 전부터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번역된 시는 낭만주의 시인의 시와, 낭만주의적 경향을 가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서 당대 학생들의 낭만적 특성, 즉 바람, 방랑, 우정, 고민, 사랑, 비, 안개, 밤과 같은 소재가 그들의 성향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대 교지에 발표된 창작문학의 주된 소재가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다음 <표3>은 1960년대 교지에서 낭만적 성향을 보이는 창작문학의 제목이다. 지면상 발간자의 단과대 세부사항은 생략하였다.

표 3. 1960년대 교지 소재 창작문학의 제목

교지	구분	제목
『단원』3, 단국대학, 1961.	시	밤
『성대문학』8, 성대국문학회, 1961.	시	밤에 사는 나무는
『고황』10, 경희대학교, 1962.	수필	밤차의 편모
『청파문학』3, 숙대, 1963.	시	고독한 나의 마음의 정원은, 시인의 탄식, 밤, 순아 우리 여기서 살자, 바람에게
	수필	비오는 날의 단상, 달에 오는 비
『이화』18, 이화여자대학교, 1963.	수필	새벽 강가에서
	시	강가에서, 슬픈 이별, 밤을 위한 서장, 슬픈 지역, 검은 눈물
	소설	병든 지성
『녹원』9, 이화여자대학교, 1964.	시	친구, 밤
	수필	친구타령, 적막의 피안에서, 비
『고황』11, 경희대학교, 1963.	시	우울한 방, 눈물의 의무
	수필	밤은 열망과 더불어
『이화』19, 이화여자대학교, 1964.	수필	밤의 연상
『홍익』2, 홍익대학교, 1964.	시	등불, 여로
『청파문학』4, 숙대, 1964.	시	겨울바다, 죽음의 창
	소설	푸른 반항
『효원』6, 부산대학교, 1964.	수필	밤의 장

6) 「중국문학의 특성과 그 연구」(『성대문학』7, 1961), 「중국고전문학의 발달」(『이화』23, 1968)

교지	구분	제목
『녹원』10, 이화여자대학교, 1965.	시	가을에 이별을, 만가, 수인
	수필	밤을 위한 서장,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동아』5, 동아대학교, 1965.	수필	밤거리에서, 술과 사랑과 친구, 죽음의 철학
	시	밤의 종장, 밤의 로타리 초
『이화』20, 이화여자대학교, 1965.	시	그리움
	수필	밤비에게 주는 글
『청파문학』5, 숙대, 1965.	소설	우정이 피해, 귀향, 길
	시	저녁답
	수필	낙엽, 비 속의 어느 지점에서
『우석』4, 수도의과대학, 1966.	시	밤바다에서, 독백
	소설	비오는 날, 신이 버린 바다
『건대학보』20, 건국대학교, 1966.	시	석별, 소야곡
	꽁뜨	별이 지티는 동행자들
	소설	폐허 속에서 꺼낸 애기들
『숙대학보』7, 숙명여자대학교, 1967.	시	늘 혼자, 강, 너와 나
	수필	우울한 화제의 주변, 상실이라는 것, 우는 취미, 잃어버린 자아
『동아』7, 동아대학교, 1967.	시	내 어둡고 황망한 방에는
『이화』22, 이화여자대학교, 1967.	시	고독의 나무, 아직은 나 괴로운 짐승이로소이다
『경기』2, 경기대학, 1967.	수필	고독의 향연
	시	강변, 어느밤
『계명』1, 계명대학, 1967.	수필	화장터, 비오는 밤에, G씨에게, 의형제
『의창』1, 부산대학교, 1967.	수필	벗에게, 데미안에게
	시	통곡, 숙명
『동아』8, 동아대학교, 1968.	수필	무상과 정복
『동국』5, 동국대학교, 1968.	시	너와 나와, 바람의 노래, 불면의 뜰에서
『숙대학보』8, 숙명여자대학교, 1968.	시	회상의 강변, 내 방황의 눈길, 황혼이 질 때
	수필	작은 역
『문경』25, 중앙대학교, 1968.	시	시인의 죽음
『이화』23, 이화여자대학교, 1968.	시	고별
『코이노니아』15, 한국신학대학, 1969.	시	죽음이 있어
『형성』3-2, 서울대학교, 1969 여름.	소설	어떤 야행
『영대문화』2, 영남대학교, 1969.	수필	언덕 위의 목가, 비 탓일까마는, 노도
	시	비의 내재율, 밤 신기루
『우석』1, 우석대학교, 1969.	수필	바닷가에서의 달밤
『형성』3-1, 서울대학교, 1969, 봄.	시	달이 떨어지는 소리, 우울한 노래
『목멱』2, 숭의보육전문대학, 1969.	수필	이 어두운 장막을, 고민, 방황, 반항의 미덕 생각하는 지성인, 한 여름 밤의 낭만, 벌레먹은 잎새

1950년대 교지에는 독특하게 도가에 관련된 논문도 보이는데, 낭만주의는 유한한 삶과 혼란한 사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도가와도 겹쳐지기 때문에 도가에 관련된 논문도 낭만주의의 특성과 연관된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외국시 관련 논문을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도가사상(道家思想)과 낭만주의에 대한 주제들이 발견된다.

표 4. 1950년대 교지에 실린 도가 및 외국시 관련 논문

게재 교지, 발간연도	구분	논문 제목
『고대문화』1, 1955	도가와 관련된 논문	도가의 문학관
『문리대학보』1, 1956		장자 및 도가에 나타난 장학
『중앙문화』2, 1955	외국시에 관한 논문	한영시의 교류
『효원』1, 1957		크리스티나 로젯티 소고
『청구문학』1, 1958		로버트 부라우닝론
『효원』3, 1959		영시감상법

위의 <표4>를 보면 1950년대 교지에 실린 논문의 저자들은 빅토리아조 낭만주의의 대표시인 브라우닝과 로제티의 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판정신과 독자적이고 세속에 초연한 개체 인격, 기이하고 환상적인 언어 기교에서 보이는 낭만주의 예술 풍격, 생에 대한 집착,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중시는 유한한 삶과 혼란한 사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도가와(신주석 2008: 173) 겹쳐진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텍스트 가운데 해방 전에도 번역되었던 시인은 테니슨, 워즈워드, 보들레르, 로버트 브라우닝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50~60년대 각 학교의 교수진들이 해방 전에 학생이었던 것과도 관련될 것이다. 특히 한 시기에 한 시인의 시가 두 번 이상 번역되었다는 것은 이 시 혹은 시인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방 전에는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시가 가장 많이 번역[7]되었다. 타고르가 인기 있었던 까닭은 그가 1929년 한국을 '동방의

7) 『휘문』2(휘문고보 문우회, 1924), 『백합화』3(경성협성신학교 학생기독청년회, 1927), 『경신』1(경신학교 동창회, 1924), 『계우』10(중앙고등보통학교동창회, 1931) 등.

밝은 빛'[8]으로 표현한 것이 식민지 상황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50~60년대 두 번 이상 번역된 시인과 시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두 편 이상 번역된 시인의 시

시인(국가)	번역시 / 국내 번역 연도
Stephen Spender (영국)	나는 끊임없이 생각한다(1955) 급행열차(1969)
Rainer Maria Rilke(독일)	아베로오네의 노래(1963) 탄식(1965) 가을(1969)

위 <표5>를 보면 1955~1969년 사이 두 편 이상 번역된 시인은 스펜더와 릴케이다. 스펜더의 경우는 15년의 간격을 두고, 릴케의 경우는 1960년대에만 시기를 달리하여서 각기 다른 시가 세 편 번역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1960년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시인은 릴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한국 애송시전집에 릴케의 시가 빠지지 않았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번역된 릴케의 시는 대부분 낭만적인 특성을 보인다.

교지 발간 당시 생존 시인의 시가 번역되었다는 것은 학생 번역문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해방 전에는 타고르와 폴 제랄디(PaulGeraldy, 1885~1983)가 생존 시인이었다. 다음 <표6>은 1950~60년대 번역 당시 생존 시인들이다.

표 6. 번역 당시 생존 시인

번역연도	시인(생몰연도)	번역된 시 제목
1955	Stephen Spender(1909~1995)	나는 끊임없이 생각한다
1955	Robert Frost(1874~1963)	황금빛으로 머물 수는 없어라
1961	Hermann Hesse(1877~1962)	밤마다
1965	Sully prudhomme(1901~)	백조

8) 일즉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 빛나든 등촉의 하나인 조선 /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 1929,3,28, - 라빈드라낫 타고아, 「조선에 부탁」(『경신』1, 경신학교 동창회, 1929).

1950년대 이후 생존 시인의 시가 4편 번역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당대의 해외 문학을 접할 기회가 다양해졌다는 것과, 학생들의 당대적 문학취향을 의미한다. 위의 시인 중 2020년 3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시인도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당대적 취향은 교지에 실린 논문에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누보루망 등 당대적인 사조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 해방 전과 비교하여 영미권 시인들보다 독일과 프랑스 시인의 번역이 더 많다는 것, 사회주의 혹은 사실주의 시인이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2.3. 중역의 문제

위의 <표1>에서 원제를 밝히지 않은 시는 「씨사」, 「동경」, 「밤마다」 세 편으로 모두 1961년 『성대문학』7권에 실려있다. 해당 학교 편집진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원제목이 제시되지 않은 시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시인데, 일본 번역을 다시 한국어로 중역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1960년대를 전후로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돌아와 국내 독문학계에서 활동하면서 번역가들이 많아졌지만 1960년대 초기 일본어 중역의 모습을 보이는 번역이 발견된다. 릴케의 「아베로오네의 노래」를 번역한 장희규는 주(注)에서 '이것은 Rilke의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속에 있는 것으로 보통 이것만 따로 번역되지는 않는다'(『녹원』9, 1963, 106)고 밝혀 이 시가 릴케의 소설 『말테의 수기』에 나오는 노래를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벨로네는 『말테의 수기』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으로서 소설의 마지막 부분 베네치아의 한 살롱에서 그녀가 부르는 독일 노래를 시처럼 「아베로오네의 노래」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벨로네'의 일본식 발음은 '아베로오네'이다. 이는 일본판을 다시 한국어로 중역했다는 한 증거(조두환, 2006)로 볼 수 있다.

3. 1950년대 교지 소재 번역시의 특징

1953년부터 1959년까지 발간된 27권의 교지 중 번역문학은 희귀한 편이다. 번역소설은 3편[9]이며 50년대 후반에 주로 번역되었다. 번역시는 4편으로 영미

권이 세 편이며, 중국 시가 한 편이다. 전체 27권의 교지 가운데 두 권에만 번역시가 실려있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고 부산에서 임시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연구 텍스트 가운데 가장 처음 발간된 교지는『학보』1(국민대학교, 1953)이다. 2년 후 1955년 세 학생에 의해 네 편의 시가 번역되었다.「귀거래사」가 중국시이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인 당시 상황에서는 번역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나머지 세 편은 영미권의 시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권의 번역시는 보이지 않으며 1955년 번역자인 '향민'은 대학원생이었다. 1950년에서 1955년 사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의 공백이 번역시의 희소성을 가져왔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어권 이외의 번역시가 등장하는 것은 1961년이기 때문이다.

1950~60년대는 계관시인, 퓰리처상 수상자,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잘 알려진 시인들의 시가 번역된 점도 한 특징인데, 이는 1950년대 국가주도의 번역사업의 (이봉범 2012 : 454)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한 번역사업이었기 때문에 외국(주로 미국)에서 유명한 상을 받은 시인을 중심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성은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와 스펜더의 시를 번역한 향민의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다음 설명에 의하면 번역된 시인이 퓰리처상과 같은 유명한 상을 받은 시인이거나, 저명하다는 점을 특별히 밝히기 때문이다.

> 프로스트는 187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 하아바드에서 2년간 수학한 일이 있다. 신문기자, 농장경영, 교원생활 등 이곳저곳을 전전하였지만 대전(大战)이후 '뉴・잉그랜드'에 정착하여 교편을 잡는 한편 계속한 시작(诗作)들은 마침내 그를 가장 저명한 미국시인의 한 사람으로 두 번이나 퓨릿씨상(赏)을 타게 하였다. -『고대문화』1, 1955, 181쪽.

> 스펜더는 1909년 런든 근방에 출생하여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시인으로 오오든, 맥니이쓰, 루이스 등과 함께 30년대에 두각을 나타내다. 시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평론가'로서도 저명하여 그 근저에『창조적요소』등이 있다 - 역자주석 -『고대문화』1, 1955, 180쪽.

1950년대 번역된 텍스트에 특별한 문예사조의 편향이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

9) 오헨리 작「어느 다망한 '브로커' 의 '로맨스' 」(『녹원』3, 1958), 어윈 쇼의「여름 옷의 여인들」(『이화』13, 1958), 모파상의「보석」(『이화』13, 1958)이다.

지 않지만, 시의 대부분이 죽음, 삶의 허무와 연관된 실존적 주제들이다. 미국 시인 포우의 「안나벨 리이」는 아내의 죽음과 추억을 다루고 있으며, 「귀거래사」는 정치적 성공의 헛됨과 자연 회귀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시인 프로스트는 「황금빛으로 머물 수는 없어라」에서 권력 혹은 재력이나 젊음이든 영원한 것이 없다는 주제를 자연에 비유하고 있다. 영국의 시인 스테픈 스펜더는 「나는 끊임없이 생각한다」에서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선각자들을 기억한다. 이같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실존의식과도 연관되는데 이는 당시 교지의 '논단'이나 '특집란'에 실존주의에 대한 논문이 많은 것과 연관된다. 다음 <표7>은 1955~1960년까지 교지에 실린 외국 문학 사조 관련 논문의 제목이다.

표 7. 1950년대 교지 소재 외국 문학 사조 관련 논문

소재교지, 발간연도	논문 제목
『고대문화』1, 1955	낭만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에르나니'의 위치
『이화』11, 1956	예술과 실존철학
『문리대학보』1, 1956	불란서문학관견
『녹원』3, 1958	19세기 이태리의 국민주의 문학운동에 대한 편모
『학보』1-1, 1958	노서아의 사실주의 문학
『청구문학』1, 1958	실존문학의 자유문제
『국제대학논지』1, 1960	실존주의의 신앙적 입장

위의 <표7>을 보면 실존주의 관련 논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 타인과 만나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끝내는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엄창섭 1996: 134)고 보는 실존주의에의 경도는 학생뿐만이 아니었다. 1950년대의 기성문단 역시 세계대전이 끝나고 형성된 실존주의 의식을 수용하면서 전후 파괴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찾아내고자(김용희 2014: 49) 하였으며, 그들이 체험하고 생존했던 암울한 시기의 극한 상황을 사회적 부조리의 형상화, 인테리 소시민의 현실묘파 등을 주제로 하는 실존주의 문학(엄창섭 1996: 145)에서 드러냈다. 이러한 특성이 1950년대 학생들의 번역시 선택에서도 발견된다.

4. 1960년대 교지 소재 번역시의 특징

1960년대는 이전의 교지에서 볼 수 없었던 외국 시인과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전까지는 영미권 번역시가 주를 이루었다면 1960년대 총 23편의 번역시 가운데 영미권은 6편이지만, 프랑스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0편, 독일시는 6편이다. 영미권을 벗어난 경향은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1960년대 영미권 시에 관련된 논문은 3편[10]이지만, 1960년대 프랑스의 시관련 논문은 6편[11] 독일의 시 관련 논문은 3편[12]이다.

그리고 1950년대가 실존주의에 관심이 있었다면 1960년대는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1960년대 휴머니즘 관련 논문은 2편[13]이며 창작문학에서 수필의 제목이 「휴매니즘」(『동아』5, 1965)인 경우도 있다. 인간존재에 대한 관심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대학생들의 휴머니즘적(인간중심주의) 사유와 고통받는 자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는 인식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1960년대 번역된 시는 낭만주의, 상징주의, 고답파, 사실주의, 교훈시, 이야기시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교훈시와 이야기시의 번역은 해방 전에도 있었으므로, 1960년대적인 특성은 상징주의시, 고답파, 사실주의 시인들의 시 번역에 있다.

4.1. 1960년대 번역된 낭만주의 경향 시인의 시

낭만주의적 특성을 개인적, 서정적, 직접적인 속마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1960년대 번역시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시인은 다음 <표8>과 같다.

---

10) 「작품을 통하여서 본 존 던의 애정관」(『숙대학보』7, 1967), 「E.A.Poe의 소고」(『계명』1, 1967), 「T.S.엘리옷의 신비평의 영향」(『문리대학보』11, 1968).

11) 「랭보오 산고」(『성대문학』7, 1961), 「노발리스의 연인들」(『효원』6, 1964), 「불란서 휴우머니즘 참견」(『이화』18, 1963), 「다다이즘, 슈르레알리즘」(『동아』5, 1965), 「'거부'의 문학 - 누보루망, 초현실주의 이후의 시 이론」(『청량원』23-2, 1969), 「앙티 · 로망 입문」(『예술서라벌』4, 1969).

12) 「카프카와 릴케에 나타난 현대의식」, 「현대 독일서정시의 문제점」 「독문학연구의 작금」(『문리대학보』9-1, 1962).

13) 「불란서 휴우머니즘 참견」(『이화』18, 1963), 「루네쌍스와 인본주의」(『고황』11, 1963).

표 8. 1960년대 교지 소재 낭만주의 경향 시인

교지에 번역된 해	이름 (생몰연도)	국가
1961	Jeseph von Eichendorfe (1788~1857)	독일
1961	Hermann Hesse (1877~1962)	독일
1962	Francis Carco (1886~1958)	프랑스
1963	Sara Teasdale (1884~1933)	미국
1963	Alfred de Vigny (1797~1863)	프랑스
1968(해방 전에도 번역)	Willam Wordsworth (1770~1850)	영국
1968	Alfred de Musset (1810~1857)	프랑스
1969(해방 전에도 번역)	Rainer Maria Rilke (1875~1926)	독일

낭만주의 경향은 시의 기본적 정서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다양한 국가의 시인들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경향의 시인들은 밤, 별, 파도, 여행, 사랑, 비, 이별, 자연의 아름다움, 울음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번역된 시들의 시간 배경이 주로 밤과 과거인데, 이는 낭만주의 시에서 즐겨 나타나는 모티브(김자성 2006: 126)로서 밤은 비현실적인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문학사에서 낭만주의 시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소재와 주제의 차원에서 낭만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번역시들은 프랑스의 시인인 프란시스 카르코의 시 「비가 내립니다(Il pleut)」(신계숙 역), 미국의 여성 시인으로서 사랑, 죽음,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로 노래한 티즈데일[14]의 시 「봄밤(Spring Night)」(서영숙 역),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뮈세의 시 「아듀(ADIEU)」(장경희 역)이다. 이들 세 시인의 주된 소재 역시 밤, 안개, 호수, 비, 사랑, 이별, 실연, 울음이다.

낭만주의 시인으로 분류되는 시인들은 요세프 폰 아이헨도르프, 헤르만 헷세, 알프레드 드 비니, 워즈워드 등이다. 이 가운데 요세프 폰 아이헨도르프는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이며, 원제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다음 번역시 제목도 꿈꾸는 듯한 「동경」이며, 여름밤, 여행, 별, 소녀 등의 낭만주의적 소재로 구성된다.

14) 1917년 『Love Songs』으로 후에 퓰리처상이 되는 컬럼비아 대학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별들은 실로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어서, 나는 창가에 쓸쓸하게 서서 / 조용한 나라 멀리서부터 한가닥 우편 나팔 소리를 들었다 / 가슴은 내 전신에서 불타올랐고, / 그때 은근히 생각했다. / 아! 이 찬란한 여름밤에 누군가 함께 여행할 수만 있더라면!(하략) - 요세프 폰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동경」, 심윤종 역, <성대문학>7, 1961, 80쪽.

독일 낭만주의 시인인 헤르만 헷세가 사망하기 1년 전에 번역된 다음 시 「밤마다」도 원제목이 없이 실려있기 때문에 원 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는 밤, 별, 파도, 벗, 슬픔, 죽음, 사랑과 같은 시어들로 구성된다.

대양이 나를 잠재워주는 밤 / 그리고 창백한 별 빛이 / 머언 파도 위에 까알린 밤, / 그때면 난 나를 깜빡 잊는다. / 일체의 행위와 온갖 사랑에서 해방되어 그리곤 조용히 서서 창백한 숨을 몰아쉰다 / 조용히 그리고 싸늘하게 수천의 불빛이 까알린 대양에 의하여 / 호올로 호올로 잠재워진다 / 그때면 난 나의 벗이 꼭 생각히워진다(하략) - 헤르만 헷세(Hermann Hesse), 「밤마다」, 원귀희 역, 『성대문학』7, 81쪽.

알프레드 드 비니는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다. 달, 지평선, 황야, 늑대를 소재로 한 다음 시 「이리의 죽음」은 시의 앞부분에 이리를 사냥하는 사냥꾼과 이리의 죽음을 묘사하였고 다음 인용은 늑대가 화자가 되어 인간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근면하고 깊이 생각하며, / 숲 속에 태어난 내가 처음으로 올라간 / 그 높은 극기의 오만함에까지 / 당신의 영혼이 아프도록 하오. / 탄식하고 눈물짓고 기도하는 것, 모두 비겁한 행동이요. / 운명이 당신을 부르고자 한 / 길고 무거운 임무를 힘차게 해 나가시오. / 그리고는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 조용히 세상을 하직하십시오"- 알프레드 드 비니(Alfred de Vigny), 「이리의 죽음(La Mort du Loup)」, 정강자 역, 『녹원』9, 1963, 100~104쪽.

낭만주의 정서에 합치되는 여행자로서의 시선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의 「수확자」는 해방 전 교지에서는 「孤独한 收获者」(『이화』5, 1931)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보시오, 들에 홀로 서있는, / 저편 쓸쓸한 하일랜드 아가씨! / 노래하며 수확을 거두네, (중략) 이 무슨 노래인지 말해줄 이 없는가? / 아마도 불행한 먼 옛일과, / 지나간 전쟁들에 부쳐 / 구슬픈 가락이 흐르는지 모르오. / 아니면 오늘날의 흔한 일들에 대한 / 속됨을 노래함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온 / 흔한 슬픔, 상실, 고통들 인지도 (후략) - 윌리엄 워즈워드(Willam Wordsworth), 「수확자(The Reaper)」, 송재영 역, 『숙대학보』8, 1968, 275~276쪽.

재번역(retranslation)은 기존에 동일한 언어로 번역되었던 작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시 번역하는 행위(박소영 2017: 153)를 일컫는다. 1960년대 후반인 1968년 워즈워드의 시를 재번역한 이유를 학생들의 사회 인식과 연관하여 찾아본다면, 18세기 영국 지배계층에게 있어서 시골 혹은 자연은 '상상의 공동체'(주혁규 2015: 69)였다. 즉 당시 시인들이 묘사하는 농촌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문명을 비판하고 농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를 당시 1960년대 학생들의 인식에서 바라본다면, 농촌을 상상의 민중으로 상정하고 계몽을 위한 농촌 봉사 활동 등에 의미를 두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번역된 시의 일부분인 '구슬픈 가락, 불행한 먼 옛일, 지나간 전쟁들, 오늘날의 흔한 일들에 대한 속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온 슬픔, 상실, 고통들'과 같은 농촌의 고통에 대한 묘사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당대 학생들의 인식과 일치했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4.2. 상징주의 경향 시인의 시들

1960년대 교지 번역시의 다음 특징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가 다수 번역되었다는 데 있다. 상징이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는 세계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상징주의란 이 상징을 통해 관념의 세계로 다가가고자 하는 유파이다.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는 인간의 심층의식의 세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음악적이며 주술적이다. 프랑스의 베를렌, 랭보, 말라르메, 보들레르 등이 이 경향에 속하는 시인들이다.

한국에 상징주의를 도입한 것은 백대진의 「십세기 初头 欧洲문학 대가를 추억함」(『신문학』1916.5.)이 처음이며 이후 김억, 황석우 등이 활성화시켰으며 『태서문예신보』6집(1918)에 수록된 번역시는 약 30편 중 절반 이상이 상징파 시이다. 1940년대 초 해방과 전쟁을 맞으며 상징주의의 일면이 사라지는 듯(김용희

2014: 53)했지만, 1960년대 다시 상징주의가 유행(한철하 1960: 34)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대학생들이 선택한 상징주의 경향 시인은 다음 <표9>와 같다.

표 9. 1960년대 교지 소재 상징주의 경향 시인들

시인(생몰연도)	국가	교지에 번역된 해
Paul Valéry (1871~1945)	프랑스	1961
Charles Van Lerberghe (1861~1907)	벨기에(프랑스어)	1962
Jean Moreas (1856~1910)	그리스(프랑스어)	1963
Rainer Maria Rilke (1875~1926)	독일	1963, 1965, 1969
Paul Verlaine (1844~1896)	프랑스	1967
Charles Baudelaire (1821~1867)	프랑스	1969(해방 전에도 번역)

위의 <표9>를 보면 대부분이 프랑스 시인이다. 해방 이전의 교지에 번역된 프랑스 시인 역시 폴 제랄디(「2원론」, 『배화』4,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1932)와 보들레르(「사의 깃븜」, 『계우』10, 중앙고등보통학교동창회, 1931) 같은 상징주의 시인들이었다.

교지에 번역된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에서 상징주의적인 특징을 보이는 시는 세 편 정도이다. 벨기에의 찰스 반 레르 베르게는 상징주의 시인으로서 프랑스어로 시를 썼으며, 번역시 「밤이 올 땐(Quand vient le soir)」(조명희 역)도 상징주의의 특징인 꿈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까만 백조는 무의식을 상징한다. 상징주의 시인 장 모레아스는 그리스 시인이며 프랑스어로도 썼으며 번역시 「정(靜 Accalmine)」(권남규 역)도 꿈이나 강박관념 같은 수법을 사용한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번역시 「깨진 종(La cloche fêèe)」(박흠련 역)도 감미롭고 신비로우며 애수가 깃든 꿈(회상)의 세계를 그린다.

위의 시 세 편 외에 다른 시들은 상징주의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상징주의의 중요한 시인인 발레리의 다음 시 「씨사」는 로마의 Caesar, Gaius Julius에 관한 시로서 내용은 상징주의와 연관이 없는 듯 보인다.

> 씨 사, 말없는 씨 사,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 굳은 주먹을 수염에 대고 /
> 침침한 눈알은 수많은 독수리를 몽아 / 저녁에 벌어지는 전투를 바라보고 /
> 당신의 마음은 자랑에 부풀어 전능의 근원을 깨닫고 있다.(하략) - 폴 발레리

(Paul Valéry),「씨사」, 김성배 역, <성대문학>7, 1961, 79쪽.

베를렌 역시 중요한 상징주의 시인이지만, 번역된 시는 상징주의적이기 보다는 가톨릭에 귀의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쓴 시집『예지(睿智, Sagesse)』(1881)에 실린 작품으로 신의 사랑을 노래한다.『예지』에 실린 시들은 제목이 없이「1-16」과 같이 번호로만 구분하기 때문에「이 부드러운 노래 소리를 들으십시오」,「이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주오」,「아주 감미로운 노래를 들어라」,「매우 달콤한 노래」 등의 제목으로 번역되는데, '들으십시오'와 '불러주오'와 같이 청자와 화자의 주체가 전혀 다르게 번역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 번역자는 이 시를「신의 노래」로 번역하지만 시의 주체는 신이 아니라 신에게 노래하는 화자이다.

> 이 부드러운 노래 소리를 들으십시요 / 오로지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흐느끼는, / 그것은 조심스럽고 가볍다. / 이끼 위에 흔들리는 물방울처럼! (중략) 선한 것이 곧 우리의 삶이요 / 미움과 질투로부터는 /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닥아오는 죽엄 뿐 (하략) - 폴 베를렌(Paul Verlaine),「신의 노래 (Ecoutez La Chanson Bien Douce)」, 이남숙 역,『숙대학보』7, 1967, 202쪽.

학생들은 수용자로서 시를 번역하고 번역과정에 개인의 생각을 투사한다. 제2의 창작이라는 번역의 의미에 충실하듯 위의 시를 번역자는 종교시로 해석했기 때문에「신의 노래」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1960년대는 독일의 상징주의 시인인 릴케의 시가 세 편 번역 되었는데,「아베로네의 노래」는 소설의 일부분인 노래를 시와 같은 형식으로 번역했다. 사랑의 환희와 슬픔을 노래하고 있기에 번역자에게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 다음에 제시된 번역된 릴케의 시 세 편은 상징적이기 보다는 서정적이거나 낭만적이다.

> 나를 고독하게 하는 그대, / 또한 나를 변모케 하는 것도 / 오직 그대 뿐이어라. (중략) 나는 결코 당신을 붙들지 않았으나 / 이젠 당신을 굳게 지키리라 -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아베로오네의 노래(Lied der Abelone)」, 장희규 역,『녹원』9, 1963, 106쪽.

> 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먼 옛날에 / 아슬히 사라져 갔음인가. / 나에게 희망을 내려주던 별도 / 수천년 옛날에 죽었음을(하략) -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 「탄식(Klage)」, 양덕자 역, 『녹원』10, 1965, 140쪽.

> 잎이 떨어진다. 멀리서처럼 떨어진다. (중략) 우리 모두 떨어진다. 이 손도 떨어진다. / 그래, 다른 것을 보라, 모든 것이 떨어진다. // 그래도 단 한 사람, /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 그의 손으로 받는 이가 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가을(Herbst)」, 편집실 역, 『코이노이아』15, 1969, 60쪽.

위의 인용시에서 「가을」은 신학교의 교지에 실린 번역시이다. 릴케의 『형상시집』(1902)은 기도하는 고독한 시인의 모습을 시화하고 있으며 위의 시 「가을」도 실려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로 시작하는 「가을날」과 같은 소재인 신, 고독, 가을, 기도가 신앙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위의 시가 번역되어 신학교 교지에 실렸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960년대 교지에 번역된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는 상징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시와 상징주의적 경향을 보이지 않는 시들이 번역되었는데, 상징주의적 경향이 아닌 시들은 신앙이나 사랑과 연관된 주제의 시이다. 번역자인 학생들이 유파보다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가진 시들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낭만, 상징주의 경향 이외의 시인들

낭만주의나 상징주의 경향이 아닌 시들은 대부분 1960년대 중반 이후 번역되었으며 고답파, 사실주의(정치적), 교훈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속한 시인들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 10. 낭만, 상징주의 경향 이외의 시인들

번역연도	작가 (생몰연대)	소속국가
1964	Par Leconte de Lisle (1818~1894)	프랑스
1965	徐志摩 (1897~1931)	중국
1965	sully prudhomme (1839~1848)	프랑스
1965	Walter de la Mare (1873~1956)	영국
1966	Thomas Carlyle (1795~1881)	영국
1968	John Donne (1572~1631)	영국
1969	Stephen Spender (1909~1995)	영국
1969	Annette von Droste-Hulshoff (1797~1848)	독일

위의 <표10>에서 먼저 고답파 시인들을 보면, 고답파(le Parnasse)는 르콩트 드 릴르가 이끌었던 19세기 프랑스 시파로서 낭만파의 서정, 감상, 주관적, 모호한 언어에 반발하여 시작되었다. 신중함, 객관성, 비개인적, 과학적, 기교, 정밀한 묘사, 우아함, 균형, 정확성, 완벽한 표현과 형식 즉, 미(美)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현실에서 주제를 찾았으나, 차차 신화, 서사시, 북구의 모험담, 고대 문명, 인도와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소재를 찾았다. 고답파 시인은 르 콩트 릴르와 셜리 프리돔이다.

르 콩트 릴르는 과거를 재현시키는데 있어 과학적 자료의 정확성을 중요시한 완벽함으로 평가받는다. 다음 번역된 시 「군상(群象)」은 코끼리 떼라는 의미이며, 사막을 지나는 코끼리 떼의 형상화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장엄한 본성의 세계가 신비하게 숨어(정광흠 2010: 414)있는 시세계를 보여준다.

> (전략) 이리하여, 용기가 충분하여 느릿느릿하게, 그들은 / 검은 줄처럼 끝없는 사막을 지나갑니다. / 그리고는 그 육중한 여행자들이 지평선으로 사라질 때 / 사막은 다시 원래의 확고부동한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 르 콩트 릴르(Lecote de Lisle), 「군상(群象 Les Elephants)」, 이계은 역, 『이화』19, 1964, 144~146쪽.

1901년 노벨 문학상을 처음 수상한 프랑스의 셜리 프리돔은 의무와 미덕을 중요시하였으며 조국을 찬양하고 이상을 추구했다. 그의 시는 형이상학적, 철학적, 교훈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 시도 고고한 백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 깊고 찬란한 호수의 거울 밑으로 / 커다란 날개로써 파문을 쫓으며, 백조는 소리없이 미끄러져 나간다. (중략) 백조는, 젖빛과 보랏빛 밤의 찬란함이 / 그대로 수면에 비쳐드는 어두어진 호수에서 / 수많은 금강석 사이에 빛어둔 은화병처럼 / 새하얀 날개 밑에 머리를 박고 두 창공 사이에서 잠이 든다. - 셜리 프리돔(Sully Prudhomme), 「백조(Le Cygne)」, 성명숙 역, 『녹원』10, 1965, 138~139쪽.

고답파 시인 외에 교지라는 특성, 그리고 학생 독자 혹은 학생 편집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교훈'을 주는 시는 쑤지모와 칼라일의 시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대하고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쑤지모의 번역시 「난득」은 중문

과가 아닌 한국어문학과 3학년 학생이 번역한 시이다. 한자문화권의 한자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의 번역시 「오늘」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도전과 다짐을 주는 내용이다.

> 밤중의 맑고 고요함, 얻기 어렵습니다. / 난로불의 따뜻함, 얻기 어렵습니다. / 말 없는 상대, 더욱 얻기 어렵습니다.(중략) 얼어 붙은 밤 속에 지금, 친구여 / 사람들은 진정 따스함 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 이 차거운 세상에서 / 처음으로 가져 본 적은 동정의 마음입니다. - 쑤지모(徐志摩), 「난득(难得)」, 오송자 역, 『녹원』 10, 1965, 142~143쪽.

> 자! 여기 또 하나의 푸른 날이 / 동트고 있고나 / 생각해 보라 그대는 이 날을 / 쓸모없이 지나쳐 버리려는가? (하략) -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오늘(Today)」, 이옥희 역, 『우석』4, 1966, 132~133쪽.

스펜더와 휠스호프는 진보적, 사실주의적인 면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시인들이다. 영국의 시인 스펜더의 시는 1955년에도 「나는 끊임 없이 생각한다」(『고대문화』1)가 번역되었다. 번역시 「급행열차」는 힘의 상징이며 허약한 사회를 부활시키는 요소이며 진보와 정의 그리고 사회개혁이라는 혁명사상이 급행열차라는 이미지 속에 은유로 담겨있어 젊은이들에게 혁명적인 사상을 심어주는 작품(장인수 2002: 56)이다. 그리고 드로스테-휠스호프는 독일의 여성 시인으로 사실주의적 정확성과 정직성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사실주의 경향의 시인이지만 번역된 시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묘사한 상징주의에 가깝다.

> (전략) 열차는 미칠 듯한 행복의 새로운 시대로 돌진한다. / 넓다란 곡선과 총검 같이 곧은 평행선 위에 / 신기한 모양을 던지며 속력을 내고 달린다. (하략) - 스펜더(Stephen Spender), 「급행열차(The Experess)」, 박미봉 역, 『이화』24, 1969, 146~147쪽.

> 수정 속에서 그대가 나를 보면 / 빛 잃은 혜성 같이 / 안개서린 두 눈으로 / 두개의 영이 감시하듯, 탐정처럼 배회하는 / 그대의 두 눈으로 나를 보면 / 아, 그럼 나는 속삭이리라. / 환영이여, 그대는 나를 닮지 않았소! 라고. (중략) 그대 시선에 사로 잡혀, 그대 - 또 하나의 나인 것을, / 두려움은 사랑과 같은

것임을 (하략) - 드로스테-휠스호프(Annette von Droste-Hülshoff), 「거울 속의 상(像)(Das Spiegelbild)」, 최민숙 역, 『이화』 24, 1969, 148~149쪽.

존 던과 월터 드 라메어는 독특한 내용의 시를 보여준다. 불굴의 정열, 냉철한 논리, 해박한 지식으로 인정받는 존 던은 영국의 성공회 사제 시인이다. 번역시 「The Good-Morrow」에서 신에 대한 사랑은 연인 간 사랑의 심리로 우유되기 때문에 존 던의 시에 관한 논문 「작품을 통하여서 본 존 던의 애정관」(『숙대학보』7, 1967)도 애정과 연관된다.

(전략) 지금은 좋은 아침 / 두려움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 깨어나는 우리의 영혼에겐, / 사랑은 다른 것을 보려는 마음을 억제하며 / 이 작은 한 방을 전 세계로 만든다. (하략) - 존 던(John Donne), 「좋은 아침(The Good-Morrow)」, 김은자 역, 『중앙문화』3, 1968, 334~335

영국의 시인 월터 드 라 메어는 '시는 내용보다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며, 의아하고 신비스런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면 시의 사명은 끝났다'고 보았다.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시와 이야기로 인기를 얻었으며 한 권의 교지에서 세 페이지에 이르는 긴 번역시도 이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사를 품고 있으며 소설 같기도 하여서 독자로 하여금 상상에 이르게 한다.

게 아무도 없소? / 한 사람의 나그네가 달빛에 싸인 문을 두드린다 / 고사리 뒤엉킨 숲에서 / 말은 소리 없이 풀을 뜯는다. (중략) 돌연 그는 머리를 들어 크게 문을 두드린다. / 나는 왔다오. / 내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구료./ 단 하나 깨어있는 나그네의 말소리가 / 그래도 조용하기만 한 어둠 속으로 / 울려나가건만 / 듣는 이들은 /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 / 아, 말잔등에 오르는 발소리, / 징이 돌멩이에 부딪는 소리, / 멀리로 사라지는 말굽 소리를 따라 / 정적이 사뿐히 내려 덮인다. - 월터 드 라 메어(Walter De La Mare), 「듣는 이들(The Listeners)」, 안순희 역, 『녹원』 10, 1965, 134~137쪽.

지금까지 살펴본 낭만주의와 상징주의 이외의 시들의 공통점은 '교훈과 비판'이라는 주제이다. 자연을 통해 나약한 인간 비판(「군상」, 「백조」),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관심(「난득」),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오늘」),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는 인간 비판(「좋은 아침」), 진보와 사회개혁(「급행열차」),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듣는 이들」) 등이다. 낭만적인 소재보다는 현실적인 주제의 시들이 주로 번역되었다는 현상은 1960년대 후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 그리고 기성문단의 사실주의 경향과 연관될 것이다.

4. 결론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학생들은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문화에 대해 자신들의 세계관, 사회관, 철학관, 문학예술관 등을 보여주는 특유의 세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이 주 편집자와 저자가 되어 발간한 교지는 매해 발간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당대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키워드의 변화를 보인다. 1950년대 교지는 농업, 재건, 국제연합, 실존주의, 도가에 대한 관심을, 1960년대 교지는 휴머니즘, 상징주의, 사실주의와 같은 논의가 다른 시기에 비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학생들의 번역시도 같은 특성과 변화를 보인다.

세계 예술사에서 각 경향의 유파는 서로 견제하며 나뉘지만, 학생들은 시인들의 유파적 특성과 관련 없는 시들을 번역하였다. 1950년대 한국 지성계나 문학사와 마찬가지로 교지에 실린 논문도 실존주의에 관심을 보이지만, 1950년대 교지에 번역된 시인들의 경향은 실존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번역한 시는 죽음과 허무라는 실존적 주제를 보인다. 이는 전쟁을 겪은 당대 학생들의 한국적 실존인식에 의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실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목도한 대학생들의 시선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번역된 시인들은 각기 낭만주의, 상징주의, 고답파, 사실주의, 사회주의로 구별되지만, 번역된 시는 유파의 특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개인의 감정, 느낌과 서정적 소재를 다룬다. 이는 유파적 특성을 가진 시를 수업시간에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거나, 번역의 한계, 즉 감정은 만국 공통이지만 각기 다른 국가 언어의 느낌, 전통상징, 해당국가의 독자들만 느낄 수 있는 운율은 번역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예로 든다면 베를렌은 상징주의 시인 가운데 음악적 인상주의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번역된 시들은 모호하지 않고 번역하기 쉬운 것들, 즉 사회비판, 교훈,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시들이 선택되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리얼리즘적 사회비판적 경향을 가진 시인들의 시 가운데서도 은유적이거나 혹은 온건한 시가 번역되었으며 교훈적인 시도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자' 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는 시기에 따른 번역시의 변화에서 보다 선명해진다. 1960년대 낭만주의의 경향을 가진 시는 초기에 주로 번역되기 때문에 1950년대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상징주의 경향 시인의 시는 초기와 후기에 나뉘어 번역된다. 그리고 사실주의 성향, 정치적 성향, 고답파 경향을 가진 시인의 시는 중기 이후에 주로 번역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낭만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현실에 관심을 둔 시인들의 시가 번역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낭만주의적 성향의 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개인의 미시적인 감정보다는 거시적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창작문학에서도 발견된다. 독재치하의 살벌한 시대를 낭만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낭만주의적 성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주의 시인에의 관심은 경직된 사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은유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사실주의 시인들의 시에 대한 관심은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정신의 상징성과 그들 시의 은유적 사회비판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의 시를 선택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는 학생운동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학생들의 번역시 연구에서 더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고대문화』1, 고대문화간행위원회, 1955.
『고황』11, 경희대학교 학예부, 1963.
『계명』1, 계명대학 학생회 학예부, 1967.
『국제대학 논지』1, 국제대학 학생회, 1960.
『녹원』3, 이화여자대학교, 1958.
『녹원』9,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1963.
『녹원』10,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1965.
『동아』5,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학예부, 1965.
『문리대학보』1,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학도호국단, 학회, 1956.
『문리대학보』9-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상임위원회, 1962.
『문리대학보』10-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상임위원회, 1962.
『문리대학보』11,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1968.
『성대문학』7, 성대문학회, 1961.
『숙대학보』7,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1967.
『숙대학보』8,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1968.
『예술서라벌』4, 서라벌 예술대학, 1969.
『우석』4, 수도의과대학, 1966.
『이화』11,이화여자대학교 학도호국단, 1956.
『이화』17, 이화여자대학교중앙재건학생회, 1962.
『이화』18, 이화여자대학교 중앙학생회, 1963.
『이화』19, 이화여자대학교 중앙학생회, 1964.
『이화』23,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1968.
『이화』24,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1969.
『중앙문화』2, 중앙대학교 이리분교 학도호국단, 1955.
『중앙문화』3,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1968.
『청구문학』1, 청구대학 학예부, 1958.
『청량원』23-2, 서울대학교사범대학, 1969.
『청파문학』4, 숙대국어국문학회, 1964.
『코이노니아』15, 한국신학대학 학생회, 1969.
『학보』1-1,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1958.
『홍익』3, 홍익대학 학생회, 1964.
『효원』1, 부산대학교 학예부, 1957.
『효원』3, 부산대학교 학예부, 1959.
『효원』6, 부산대학교 재건학생회, 1964.

2) 논문 및 단행본
김병철. (1998).『한국현대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98.

김용희. (2014). 「김종삼 시에 나타난 상징과 상징주의 계보에 관한 연구」 『한국시학연구』 40: 47~72.
김자성. (2006). 「헤르만 헤세의 서정시에 나타난 낭만성의 자기실현」 『헤세연구』 15: 117~135.
박소영. (2017). 「Animal Farm의 영한 번역본에 나타난 재번역 양상 고찰」 『T&I Review』 7: 153~163.
신주석. (2008). 「한대문학에 나타난 도가사상」『중국문화연구』 12: 165~185.
엄창섭. (1996). 「실존주의 문학이론」『문예운동』, 132~149.
윤미선. (2019). 「번역학 관점에서 바라본 김수영 번역 연구」『T&I Review』 9: 53~72.
이봉범. (2012).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 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431~510.
장인수. (2002). 「Stephen Spender 时의 主题 变容 过程」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3(1): 45~58.
정광흠. (2010). 「르꽁트 드 릴르 Leconte de Lisle와 인도신화」『프랑스문화예술연구』 31: 413~458.
정경은. (2009). 「『이화』에 나타난 외국문학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1: 97~135.
정경은. (2011). 「해방 전 교지 소재(所載) 서구 번역시의 특징 고찰」 『번역학연구』 12(1): 211~238.
조두환. (2006). 「독일문학~릴케의 "말테의 수기"에 관하여」 『교수신문』 2006, 7, 17.
주혁규. (2015). 「여행자의 집쓰기 행위」 『새한영어영문학』 57(3): 61~83.
한철하. (1960). 「상징주의냐 역사적 사실이냐」 『신학지남』 27(2): 34~43.

This paper was received on 31 March 2020; revised on 15 May 2020; and accepted on 30 May 2020.

Author's email address

rainshoes@hanmail.net

About the author

Kyeongeun Chung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he is interested in the translations and creative literature published in the journals of university schools.